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는 증권사 연봉 감액 속 삼성맨 '59억' 1위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여파로 증권업계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와 평균 연봉은 줄어드는 가운데, '연봉킹'은 견제하면서 '증권맨'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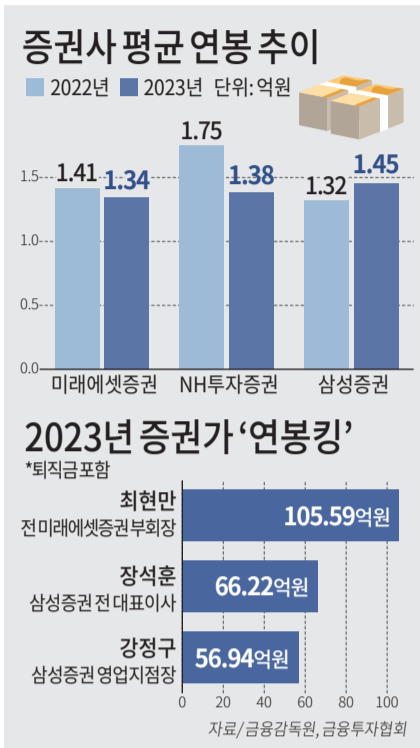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투자·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대신증권)의 임직원 수는 2만3655명으로 2022년 말(2만3939명) 대비 284명이 감소했다. 전년 동기(35명)보다 감소 폭이 약 8배나 증가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임직원 수는 1년 사이 143명(3.9%)이 감소했다. 지난해 희망퇴직, 부서 축소·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증권사 중 지난해 인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평균 연봉도 2022년 1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4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인력·인건비를 축소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업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만큼 성과급 감소 영향으로 연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지난해 각각 51명(1.7%), 57명(3.7%)씩 줄었으며, 신한투자증권 37명(1.4%), NH투자증권 31명(1%), 하나증권 16명(0.9%) 등도 감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사별로 경영상황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성이 악화된다면 기업금융(IB) 분야 등 전문 계



금투협,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수 1년 사이 143명, 3.9% 줄어들어 평균연봉 1.4억→1.3억으로 감소

작년 말 10대 증권사 임직원 수 284명 줄어들어 2만3655명 불과

약자들을 중심으로 임직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 개연성은 존재한다"며 "부동산 PF 사업이 부진하면서 해당 분야의 일이 줄어들다보니 이직·퇴사하는 경우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증권사 내부 부동산 부실 우려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1563억원의 호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임직원 수는 57명 감소하면서 전체 3.7%가 감축됐다. 증권사

연봉 상위권에는 양홍석 부회장(34억8000만원)과 이어룡 회장(32억2000만원)이 랭크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내에서 의도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직·퇴사가 이뤄진 반면, 코로나19 이후 신규 채용없이 경력직 수시 채용만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회장·부회장의 평균 연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전년(약 38억원)보다 약 11%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5대 주요 증권사 중 전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평균 7% 가량 줄어들었다. 미래에셋증권과 더불어 NH투자증권도 2022년 기준 1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선방한 실적을 내놓았던 삼성증권은 유일하게 직전 해보다 1300만원 증가한 1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회성으로 분류되는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 '연봉킹'도 삼성증권에서 나왔다. 강정구 삼성증권 삼성타운금융센터 영업지점장의 지난해 연봉은 56억9400만원으로 퇴직금 수령자,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다. 앞서 2019~2021년에도 3년 연속 증권사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 측은 "강 지점장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유망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제안을 통해 고객 수익률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증권, 책무구조도 마련... 법 개정 대응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



/KB증권

KB증권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면서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의 관심과 책임감 제고,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가짜 코인 거래소 투자 사기 '주의보'

금감원, 신고안한 거래소는 '불법' 온라인서 만나 고수의 투자 권유맨 사기일 확률 커... 의심·주의해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래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킴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의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끝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금감원 측은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中 증시 반등... 중학개미들 다시 'Buy'

예탁결제원, 개인투자자 보유 中주식 10억 달러, 전월비 8727만 달러 ↑ "디플레이션 등 변동성 커 투자 주의"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떠났던 중학개미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침체, 미·중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은 총 10억 1913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8727만달러 증가했다. 보관금액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들어온 해외 주식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 규모를 뜻한다.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및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중국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판단한 국내투자자들이 중국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중국 최대 전

기자 업체인 비야디(BYD)를 343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이어 배터리 기업 CATL(102만달러), 리튬 대기압 간평리튬(87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앞서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한 것에 비해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같이 중국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중국 정부는 증시부양에 나섰다. 중국 증권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초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혔다. 또 지난 1월 2조위안(약37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기금을 투입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투자공사(CIC) 산하 중앙후이진투자 등이 대거 주식 매수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확대하며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기존 연 4.20%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치로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 지수들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CSI300 지수는 연초 이후 4.27% 올랐으며 상하이지수도 3% 가량 상승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 ETF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 레버리지(합성)'은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19.28%를 달했다. KODEX 차이나 2차전지MSCI(합성)와 TIGER 차이나 전기차SOLACTIVE도 각각 10.25%, 9.74%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역시 당국의 정책 강도가 과격적이지 않고 디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